

# 通卷 100號의 發刊을 맞아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長 柳 續 佑



우리 韓國防衛産業振興會에서 발행하고 있는 本誌「國防과 技術」誌가 6月로서 通卷 100號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9年 1月 創刊된 이래 9年餘 동안 防衛産業技術의 발전을 위한 專門技術誌로서 그 所任을 다하여 온 本誌의 이번 100號 發刊을 會員社 여러분과 함께 自祝하면서 그동안 훌륭한 內容이 될 수 있도록 聲援하여 주신 各界各層의 執筆人士와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發刊에 힘써 온 關係者 여러분의 勞苦에 대해 紙面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0年代初 우리의 힘으로 防衛産業을 시작한 이래 國內 防衛産業은 刮目할 만한 成長을 거듭하여 이제는 國家 安保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基幹産業으로서 그 位置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政府의 育成·支援과 業界의 부단한 努力에 의해 技術開發에 注力한 결과 이제는 在來式 基本武器의 量産段階를 넘어 尖端精密兵器를 獨自의으로 개발할 수 있는 技術高度化의 문턱에 到達하였습니다.

갈지 않은 期間 동안에 이룩한 이러한 發展에도 불구하고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情勢는 우리 防衛産業의 第2의 跳躍을 강력히 要請하고 있는 狀況입니다. 서울 올림픽等 國家의 大事를 앞두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北傀의 挑發威脅과 最近 東北아시아에서 軍備增強을 거듭하고 있는 소聯의 膨脹主義, 이와함께 두 好戰의 勢力의 軍事的 癡着 움직임은 韓半島에서의 恒久的 平和와 繁榮을 기대하고 있는 全世界 人類의 耳目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安保態勢를 더욱 強化해야 할 必要性을 提起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與件아래서 韓國防衛産業振興會는 自主國防의 絕對的 命題로 浮刻된 防衛産業의 健全한 발전을 위해 쉬지않고 努力하여 왔습니다.

최근 第2次 韓·美防産會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韓·美防産業體間의 紐帶를 강화하고 對外協力을 통한 國際化 時代의 開幕을 이루게 된것도 이러한 努力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努力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國內 防衛産業이 第2의 跳躍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力量을 다할 것이며, 이와 발맞추어 本誌 또한 防衛産業의 技術發展을 위해 獻身해 온 經驗을 바탕으로 先進技術의 길잡이 役割을 맡아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誌가 無窮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防衛産業 業界와 關係當局 여러분의 계속적인 聲援과 協助을 기대하는 바입니다.